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어제 인플레 보고서로 연준 승리 장담 못해
- Bloomberg: 필라 은행총재, 금리 현 수준 유지 촉구하다

[미국 금융]

- WSJ: 연준이 시장에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다
- WSJ: 내년에 소셜시큐리티 금액이 늘어나는데 충분할까
- WSJ:미국인의 미납 세금은 무려 6천8백80억달러
- WSJ:JP 모건 CEO, "지금 이 수십년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 일수 있어"
- Bloomberg: 씨티 그룹, 5단계이 관리 계층 제거 등 조직 개편

[에너지]

- WSJ: 유가에 비해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 크다
- CNBC: 유가 약 4% 상승... 미국의 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세계 경제]

- Bloomberg: 이스라엘 전쟁 확산,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2020년 이래로 의류 가격 가장 크게 감소
- CNBC: 구글 본사, 일부 시설 공개해 대중에 다가간다
- Bloomberg: 디즈니, 세계 첫 겨울왕국 테마파크 선보인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This Inflation Report Won't Let the Fed Declare Victory

어제 인플레 보고서로 연준 승리 장담 못해

- 요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를 3%로 고착 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함에 연준의 목표치 2%를 상회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 9월에 인플레 둔화 현상이 주춤해지면서 한마디로 완전한 가격 안정화는 여전히 험난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물론 희소식은 물가 상승이 지난해 기록적인 40년만의 최고치에서 뚜렷하게 둔화되었는데 특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의 둔화되었다.
- 그러나 좋지 않은 소식은 올해 초여름에 핵심 물가지수가 빠르게 둔화되는가 싶더니 지난 9월에 소폭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9월에 0.3% 상승해 두달 연속 상승했다. 전년 9월 대비해서는 4.1% 상승했다.

WSJ 기사

Bloomberg: Fed's Harker Reiterates Call for Holding Interest Rates Steady

필라 은행총재, 금리 현 수준 유지 촉구하다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총재인 Patrik Harker는 현재 디스플레이션이 진행중이며 관련 경제 데이터가 급격히 바뀌지 않는 한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그는 “연준이 현 금리 수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셈이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셈” 이라고 델라웨어 주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말했다.
-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경제및 금융 여건이 본인의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고 가격 둔화와 함께 건축 노동시장이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The Fed Is Putting Too Much Faith in Markets 연준이 시장에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다

- 요지: 채권 수익률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준에는 새로운 이론이 있다. 채권이 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올해 금리를 이상할 필요가 없이 관망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 물론 채권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 높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의 원인은 경제를 부양해야할 정부의 광범위한 차입 때문일 수 있다, 둘째로 정부가 시장에 의해 금리 인상이나 금리 중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등이다.

WSJ 기사

WSJ: Social Security Is Giving Retirees a Raise in 2024. Is It Enough? 내년에 소셜시큐리티 금액이 늘어나는데 충분할까

- 내년 1월부터 월 평균 소셜시큐리티 수표가 평균 59불 또는 3.2% 증가해 월 1천9백6불을 받는다고 연방사회보장국은 밝혔다.
- 이는 올해 은퇴자들이 받는 8.7%의 인상률보다 훨씬 작은 인상률이며 인플레이가 둔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른바 COLA라는 생활비 조정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인플레이와 보조를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 그러나 인플레이가 여전히 높고, 가격 압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인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상황이다.

WSJ 기사

WSJ: Americans Failed to Pay a Record \$688 Billion in Taxes. The IRS Says That Will Change.**미국인의 미납 세금은 무려 6천8백80억달러**

- 요지: 이에 따라 연방국세청은 고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 연방국세청의 어제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세금 신고에서 약 6천8백80억불 세금이 납부되지 않아 사상 최대의 미납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연방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와

WSJ 기사

WSJ: JPMorgan's Jamie Dimon: 'This May Be the Most Dangerous Time the World Has Seen in Decades'**JP 모건 CEO, "지금 이 수십년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 일수 있어"**

- JP 모건의 Jamie Dimon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발생한 전쟁이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 은행의 수익은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발표됐다.
- 이 은행은 연준의 금리 상승에 힘입어 올해 3분기에 수익이 3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수입은 작년의 97조 4천억달러에서 1백31억5천억달러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주당 4달러33센트로 예상치 보다 높은 수치다.
- 그는 금요일에 미국 가계외 기업이 전반적으로 건전한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정부 부채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리고 두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식량 시장, 세계무역, 지정학적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 기사

Bloomberg: Citigroup's Fraser Plans to Remove Five Management Layers in Reorganization**씨티 그룹, 5단계이 관리 계층 제거 등 조직 개편**

- 이 은행의 CEO인 Jane Fraser는 이같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개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 은행은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금요일 회사 웹사이트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은행 조직 13개 계층을 8개 계층으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미 CEO의 조정으로 약 60개의 관리 위원회들이 사라졌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WSJ: The Oil Price Has a Safety Valve. Gas Doesn't.**유가에 비해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 크다**

- 하마스가 지난 토요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래로 브렌트 원유 가격이 6% 상승했다. 중동에서 분쟁이 지금까지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이란이 개입한다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
- 한편, 유럽의 TTF 천연가스 기준점이 이번 주에 40% 이상 급등했다. 이스라엘의 에너지부는 Chevron에 Tamar 해안 가스전에서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집트에서 시작되어서 가자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닫혔다.
- 천연가스가 원유에 비해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원유에 비해서 천연가스를 공급할 국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S&P Global의 글로벌 천연가스 전략을 이끄는 Michael Stoppard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Oil prices rise over 4% after U.S. tightens sanctions on Russian crude sales**유가 약 4% 상승... 미국의 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강화한 이후, 오늘 금요일 유가가 4% 이상 상승했다.
- 어제 목요일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하다 적발된 두 해운사를 G7의 배럴당 60달러 유가 상한선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
- 이 유가 상한선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를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원활히 공급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 도입됐다.

CNBC 기사

[세계 경제]

Bloomberg: Wider War in Middle East Could Tip the World Economy Into Recession**이스라엘 전쟁 확산,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더 확산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런 시나리오를 토대로, 블룸버그 경제는 유가가 배럴당 150불까지 치솟을 수 있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7% 감소할 수 있음을 추정했다. 이런 경제적 파장은 세계에 약 1조원 달러의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블룸버그는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에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1) 분쟁이 가자지구 안에서 제한된 경우

- 이런 경우, 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란의 원유 생산 감축을 상쇄할 경우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2) 분쟁이 대리전으로 커지는 경우

- 분쟁이 레바논과 시리아로 확산되는 경우, 이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리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선 유가가 10% 정도 상승할 것이며, 지난 아랍의 봄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 이는 내년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0.3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생산량 감소를 의미한다.
- 또한 높은 유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0.2퍼센티지 포인트를 추가해 인플레이션 수치가 6%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되는 경우

- 두 국가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가장 가능성이 작지만, 위험하다.
- 이 시나리오에선 유가가 이라크가 1990년도에 쿠웨이트를 침략했을 당시 상황과 유사하게 급등할 수 있다. 유가가 배럴당 150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란이 Hormuz 해협의 정유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또한 이란의 원유 공급 감축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2024년의 경제성장률을 1.7%로 끌어내릴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lothing Prices Drop Most Since 2020 Ahead of Holiday Season 2020년 이래로 의류 가격 가장 크게 감소

- 어제 목요일 발표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의류 가격이 팬데믹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 NIQ 연구소에서 Global Thought leadership의 책임자인 Lauren Fernandes는 이번 시즌에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있는 생각은 꼭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런 현상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부동산과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높은 고정비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CNBC: Google is opening a cafe, store and event space to the general public near its headquarters

구글 본사, 일부 시설 공개해 대중에 다가간다

- 구글이 이번 주부터 본사의 일부 지역을 대중에 공개한다. 이번에 구글이 공개하는 부지는 Visitor Experience 센터라고 불린다.
- 그동안 일반 대중들은 구글의 사무실 공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번 방문센터가 개장함으로써, 외부 그룹인 커뮤니티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행사나 미팅을 위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센터 내부에는 이벤트 행사 공간, 상점 그리고 카페가 들어섰다.
- 이런 변화는 실리콘 벨리의 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일반 대중에게 기업 부지를 공개하지 않았던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Disney Launches World's First 'Frozen' Land in Theme Park Push

디즈니, 세계 첫 겨울왕국 테마파크 선보인다

- 월트 디즈니가 홍콩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세계 최초의 겨울왕국 테마랜드를 개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기업은 전 세계 파크와 리조트에 60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이번 테마랜드는 11월 20일 개장될 예정이며,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의 얼음 궁전 같은 랜드마크도 선보일 예정이다.
- 관광객들은 보트 체험과 썰매를 테마로 한 롤러코스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식당에선 북유럽풍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9월 물가지표에 '3% 인플레이 고착' 우려...고금리 오래 가나

주거·서비스 인플레이 여전히 안심 못해...연준 인사 "진전 고르지 않아"

선물시장서 12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 하루 만에 28.2→33.7%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목표치 2%보다 높은 3%대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만큼, 연준이 조만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는 힘들며 '더 높은 기준금리를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주목받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